

설치미술가 최재은,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 초청

24 February, 2016 | 유이청 기자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초청된 최재은 작가와 '꿈의 정원' 프로젝트. 사진=국제갤러리

【인터뷰365 유이청】설치미술가 최재은(63)이 '꿈의 정원 프로젝트'로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참가한다.

국제갤러리는 24일 최 작가가 5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초청받았다고 밝혔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짝수해에는 건축전, 홀수해에는 미술전이 번갈아 열리고 있다. 올해 건축전의 주제는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이다.

최 작가는 건축전 본전시에 '꿈의 정원 프로젝트'로 참가한다. 이 프로젝트는 비무장지대(DMZ)에 지상 3~6m 높이, 총 15km 길이의 공중정원 13개를 만들고 '바람의 탑'을 두 군데에 세우는 것이다.

최 작가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 참가한 바 있어, 건축전과 미술전에 모두 참여하는 첫 한국 작가가 됐다.

한편 지난해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본전시에서는 임흥순 작가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은사자상을 받았다. 2014년 건축전에서는 남북한의 건축 100년을 조망한 한국관이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